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총연합회 서울총회사무관 강갑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 (하박국 3:2)



제3차 청지기훈련 10월 26일(금), 저녁 7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가까웠으며, 그 날에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날에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합 1:2장) 이어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대해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이처럼 하박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를 깨닫습니다.(요일 3:1-3)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음의 아내를 생각하여 보자”(욥 2:7-10)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눅 17:29-33) “뒤를 돌아보지 말라”(눅 9:57-62) 악한 영들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으로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 부와 권력지향의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갈 6:14) 십자가에서 참된 부흥은 시작됩니다.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십시오.(살전 5:6)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 이제 12월 남았습니다!

피팩장으로 주제발표 “믿음의 삶”(히브리서 11:1-2) 이번 주 19일, 금요찬양집회 시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 시, 열두 분의 피팩장로님들이 수 개월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와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동력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제발표를 준비한 피팩장로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갈 2:20)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딤후 1:15)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에 나오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앞에 자기를 부인한 피팩장로님들이 누린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본지 7면에 주제발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⑧ (금요찬양집회)

아기 예수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1~3)

대중에서 시무하던 한 목이 어느 날 회의에 늦어 지자 자동차의 속력을 내며 달렸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재판날이 되어 법정에 나가 순서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적어놓은 이유를 무죄판결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판사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판사는 20년 전, 대학 1학년생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종교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제자였다. 판사는 서류를 보고 금방 알아차렸고 목사는 판사에게 물었다. “빠져나갈 수 없었죠?” 판사는 대답하였다. “당연하죠.” 역할이 뒤 바뀐 것이다. (마 26:63-64)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말기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에게 관심을 모으는 것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역할을 바꾸어야 때문이다. 비록 작은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 2:17)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히 3:1)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이면 반드시 성전에 나아갔다. 이들이야말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뀐역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성전과 제사장들을 책임하시던 예수님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의 몸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 있다. (눅 11:43-44; 히 9:14, 10:9-14)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율법과 그 행위로 이루어진 구약이 이제 다 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첫 번째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으므로 항상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종교적인 예식이 새 대제사장에게 의하여 폐하여졌다. (히 10:1) 이 대제사장이 친히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다. (히 9:26-28) 즉, 역할이 바뀌어졌다. 성금요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날이 새로운 탄생의 날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다. 말기유에 누우신 그 아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교회력에 대림절(Advent)이 있다. 이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말한다. 대림절을 제외한 나머지 1년 동안 교회는 물질·인본·상업주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 대림절 기간에는 물질·인본·상업주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의미이긴 나쁜 의미이긴 기대되는 계절이 다가온다. 교회가 비판하던 물질주의가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계절인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사는 것으로부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한다. 진실로 연약한 인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히 12:2)

구약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로 혼란에 빠져있던 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미가서와 신약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미 6:8) 요일 4:7)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아버! 하나님께서도 나이가 많아서 시면서 더 좋아지시나 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사를 좀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이 더 좋게 깨닫는 것도 이해의 한 방법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은 아기 하나님이니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성품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깨달아 성장하며 사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며 사신다. (딤후 3:16-17)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엡 4:21-24)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삶을 심판할 자 앞에 설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살후 1:5-8) 헌금, 봉사, 찬양 등의 일들이 재판장에서 좋게 보기를 소망한다. (마 7:22-23) 그러나 재판장은 우리의 기록을 보며 “헌금, 찬양은 당신의 영을 도와주고 내가 즐겁게 듣기도 했지... 그러나 그 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 필요 없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거지 나사로, 십자가의 강도가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써야 할 보고서가 없었다. 이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형벌에 처할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 (마 7:13-14, 24) 히 3:1, 19, 4:1-2)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주어졌다. 이들은 생명이자기도 희생하신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을 믿었다. (히 4:14)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히 10:37-39) 아멘.

YOU ARE STILL FLESHLY

⁽¹⁾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to you as to spiritual men, but as to men of flesh, as to infants in Christ. ⁽²⁾I gave you milk to drink,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yet able to receive it. Indeed, even now you are not yet able, ⁽³⁾for you are still fleshly. For since there is jealousy and strife among you, are you not fleshly, and are you not walking like mere men?(1 Corinthians 3:1~3)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The Bible tells us that to be a Christian means that a sinner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their Savior. Jesus died for sinners, so that they can become children of God, citizens of heaven, partakers of eternal life. When someone accepts Jesus Christ as their Lord, the Holy Spirit enters their fleshly body and changes their nature. This transformation is called being born again. All God's children experience new birth. Jesus told Nicodemus, a religious leader of the Jew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Although Nicodemus was a religious scholar who earnestly sought eternal life, he did not know that it was necessary for God's children to be born again. Jesus had to explain the meaning of new birth to him because religion, great churches, and powerful priests and pastors cannot make one born again. Only faith in Jesus Christ can change your nature. Are you born again?

God's saving plan begins with new birth (conversion), then grows (sanctification) and matures (glorification). The process is similar to our physical bodies. Human infants are born; grow into adults, and then die. Loving parents feed and care for their young with the expectation of physical growth and mental development. From birth until independence, a lot of time and effort goes into this process. Sadly, too many parents neglect spiritual growth. They focus more on physical health, academic education, and social graces rather than on their child's spiritual health, godly education, and heavenly graces. It is strange, since we are talking about eternal life, that parents do not give their children the attention and care needed to nurture their souls. The consequence is that today's churches are filled with believers who have not grown and matured in Christ. These believers cannot understand the deeper truths of the Word of God and their lives are filled with strife. Their condition has caused the Christian church to catastrophically not grow. There are just too many Christians in the church that have remained spiritual babies for too many years. We need to recognize spiritual infancy.

Spiritual babies are concerned with self rather than service. When people accept Jesus into their hearts, they experience great happiness. They are excited and their lives reflect the glory of God. Unfortunately, the Devil loves to snatch that joy away. Jesus delivers you from destruction when your heart is with him. Parents always pamper and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ir young. Whenever a little baby cries, everyone turns to make sure the child is okay. Infants get upset over the littlest things, as do baby Christians. Indeed, some Christians need to be handled with kid gloves because they wear their feelings on their sleeve, have emotional outbursts, and pretend to be something that they are not. Baby Christians go to church and act extra nice, but then go home and act completely different. They praise God in church and pout at home. They act like ladies and gentlemen in the church, but in their homes they act like demons. Baby Christians are always receivers, never givers. They fuss over nonsense, and forget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Paul advised the Philippian, "Only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so that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remain absent, I will hear of you that you ar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Phil. 1:27) He also said,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Phil. 2:4)

Spiritual babies are concerned with arguing rather than acting. Always filled with excuses, they love to ask "Why" and "How come," and say "I do not understand." Envy, strife, and division are part of their occupation, as are fighting, grumbling, and complaining. Galatians 5:17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Baby Christians tend to let their emotions control them. They are self-centered, acting like little kids who fight and cry at the playground. They do not think. It is easier for them to argue than to act. It is more comfortable for them to grumble than to do something or to go somewhere. Spiritual babies are scarcely distinguishable from natural or unsaved men.

Spiritual babies look to people rather than to the Master, Jesus Christ. Little children always call out to their mom, dad, brother, or sister. If there is no response, then they despair and scream. Spiritual babies also look to human resources instead of Jesus Christ. They turn to pastors, evangelists, and other church people, but not Jesus Christ. They look for life's answers in other books, not the Bible. They come to church looking for special music and dynamic preaching, and miss listening for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hear only human sounds. They keep reaching out, not praying to Christ within.

Spiritual infancy is a serious problem in the church today. Too many members are not growing and maturing in Jesus Christ. These spiritual babies need to look to Jesus Christ, who loves them, prays for them, and gave His life for them. They need to begin growing by studying the Bible, denying themselves,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and obeying God's word. They need to practice their faith daily, so that they can mature and stand in front of Jesus Christ on the Last Day. Please, my dear friend, it is time to grow up! Jesus tells us,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t. 5:48) Now is the time for service, not selfishness,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Eph. 4:13). As a born again Christian, "...we are no longer to be children, tossed here and there by waves and carried about by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trickery of men, by craftiness in deceitful scheming;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Eph. 4:14~15) Now is the time for action, not arguments. Now is the time for love, not lip service. Now is the time for faith, not foolishness. Please, wake-up and open your spiritual eyes to the Lord Jesus Christ. Stop with the fleshly life and start living the spiritual life, which is your privilege and pathway to the kingdom of God. Your condition is inexcusable, for you have been saved long enough to have grown up. 🙏

다음 주일 설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¹⁾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²⁾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³⁾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린도전서 3:1~3)



김성환 목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에서 그들의 육신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관원인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니고데모는 영원한 삶을 간절히 찾았던 종교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종교나 대형 교회, 탁월한 사역자나 목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영적 어린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듭남(회심)을 시작으로 성장(성화)과 성숙(영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과 비슷합니다. 갓난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은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모들은 애정 어린 손길로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아주 많은 부모들이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경건 훈련, 하늘의 은총보다는 육신의 건강, 학교 교육, 사회적인 가치관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멈춘 신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어린이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이의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영적 어린이

영적 어린이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큰 행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불행하게도 마귀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린이가 울면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괜찮는지 보고 돌아옵니다. 어린이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괴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면 지나칠 정도로 점잖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완전히 또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이기적합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신사 숙녀처럼 교양 있게 행동하다가도 집에 오면 마구처럼 변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할 뿐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는 아난버서를 받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 1:27)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4)

말뿐인 영적 어린이

영적 어린이들은 행동하기보다는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핑계거리가 많은 그들은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묻거나 "난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름, 불평, 불만뿐 아니라 시기, 분쟁,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7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놀이터에서 울면서 싸우는 어린이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하는 것보다 논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하고 어딘가 가는 것보다 불행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영적인 어린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 어린이

영적 어린이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어린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 누나나 형을 찾습니다. 만약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들은 절망해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영적 어린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목사나 전도사,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악이나 영성적인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청각 성령의 음성은 농작비리고 인간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적 어린이들은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는 교인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영적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애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성숙해지고 마귀만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지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떠나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에베소서 4:14~15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은 논쟁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일술대로 말할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리석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깨어서 영의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육적인 삶을 멈추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있는 환경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도 남을 만큼 오래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0. 10.)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14~23)



우리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찬 348장)라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신앙을 고백(요 1:49)하는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다. “그날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 이 약속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요한복음 2~10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9,11) 또한 부활도 예고하셨다. (요 10:17~18) 이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다. (요 11:11,14)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 11:21)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요 11:23)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의무가 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3년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권위 있는 말씀,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마땅한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울음을 그치고 부활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었다. 이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야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분위기만 살피고 있었다. 이에 예수님은 심령에 통통히 여기시고 민망하여

기시며(요 11:33)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요 11:34) 그러나 이같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여전히 움추러서 주변의 눈치만 보았다. 이전에 나 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기적, 오병이 기적,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치유를 수없이 보았음에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죽은 자가 4일이나 지났습디다.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요 11:39)라는 말뿐이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곧 우리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될 텐데 항상 의심, 변명, 핑계 그리고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나사로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예수님은 우리를 ‘의문에서 확신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다”(롬 5:17) 우리는 더 이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나사로야 나오라”(요 11:43)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 10:10) 예수님을 믿자! 우리의 신앙이 ‘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하도록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크게 부르신 것이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촉구하셨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요 11:44) 나사로는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 사슬을 푸는 데에 제자들이 필요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푸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1~24)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사슬에 묶인 그들에게 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에 우리들의 사명은 분명하다. 거저썩여진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온 땅 열방을 향해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자.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는 영혼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돕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마 28:18~20) “항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찬 346장) 아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22교구

22교구는 서울을 벗어나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천안 그리고 더 나아가 대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9세대 837명의 성도들이 8개 지역 33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교회 목표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말씀 위에 십자가 복음을 새우기 위하여 온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모임을 통하여 첫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과 구역과 지역의 모든 22교구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시 116:2)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를 최우선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마음에 새기며 금요찬양회, 교구 영

성찬례, 총동원 전도집회, 남녀 구역예배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든든한 믿음의 뿌리와 영성을 가진 지체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2교구 성도들은 먼 거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모습 속에서 참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주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구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환우와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심방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구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22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우천(장로, 22교구장)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먼저 선교를 다녀온 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를 묻기보다는 현재의 날씨나 식사거리부터 물어보았다. 영성 심사 때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 하였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해서인지 선교지에서 나는 영적으로 계속 놀려 있었고, 자신있던 언어조차 꼬여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이다. 우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1:1로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강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옆에 있던 분도 자리를 피하여 나이 많으신 분에게 흡사나 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며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분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영접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하며 기쁘게 “아멘!”으로 영접하였다. 이분이야말로 주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았다. 가난하고 낮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셨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며 주변을 맴돌던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다. 비를 맞으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갔음에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였다. 성령님의 역사와 금식하며 기도해준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연합하고 미려한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우병희(집사, 2교구)

다음 사역지는 ‘한국!’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친구와의 해외 여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며 선교 신청을 하였다. 신입생인 나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은 주말 저녁밖에 없는데 매주 일 저녁 늦게까지 팀 모임을 하고, 금요찬양집회에도 참석해야 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도 선교가는 기간을 빼줄 수 없다고 하여 그만두어야 했다. 세상적인 유혹과 생각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수도 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후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친구들과 몇 시간 더 놀고, 돈 더 벌면 뭐 해, 난 생명을 구하려 가는 거야!’ 얼마 뒤 아프리카스탄 피랍사건이 일어났고, 주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선교를 막았다. 그러나 나의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독교에 대한 악물들을 보면서 더욱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막상 선교 셋째 날까지 나의 선교사역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0.2점 정도라 할까?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무서웠고, 집집마다 큰 개들이 지키고 있어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날 밤 평가회가 끝나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언어부터 다시 정리하였다. 다음 날,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집씩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현지인들은 우리의 서투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도지를 읽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들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다. 동네 아이들은 우리를 따라오면서 계속 찬양을 불렀고, 온 동네가 아이들의 찬양소리로 가득했다. 특히 우리의 전도로 새 힘을 얻었던 한 여인의 모습은 아직도 나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처음에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부인을 하지 못해서 ‘선교를 가지 말까?’ 생각했던 정말 나약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에 주셨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사역을 마치면 비를 뿌려주셨다. 또한 친절하신 가이드와 주님이 쓰실 한 명의 예비 목사로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전하기만 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에 주님께서 빛과 물을 주시며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만났던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선교지에서는 그들이 내에 대해서 모르고, 외국인으로서 오히려 쉽게 주님을 전했던 게 아닐까? 한국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담당하고 담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다음 사역지는 ‘한국’이다!

김정은(대목부)

성령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단기선교를 권유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을 때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선교훈련을 통해 더욱 확실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도착하여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다소 위축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는 흔들렸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제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더욱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 특히 복음을 영접했던 11살 소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최규욱(집사, 12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 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일(월) ~ 10월 10일(수)	22 교구	홍원석
10월 2일(화) ~ 10월 9일(화)	이연 찬양대 ②	김옥근

22·20교구 팀

주님의 손길

※ 주님의 해리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하심에 나를 쫓아온 것을 감사할 뿐이다. (김정환 집사)

※ 많은 분들의 기도로 선교를 하는 동안 아프지 않았다. 성령님의 은혜였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 목말라 했던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박영환 집사)

※ 집집마다 우상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완강하게 주님을 믿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으로 그 영혼이 불쌍하였다.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것이다. (윤은순 권사)

※ 선교지에 도착해서 막상 선교를 하려다 보니 언어의 부족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깨달았다. (김성수 안수집사)

※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곳이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박혜순 권사)

※ 대문 앞에 우상의 표시가 집집마다 있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한영남 권사)

※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통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했다. (이정주 집사)



가슴엔 눈물로, 등에 땀으로

금요일 저녁, 서둘러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 들 처치고 종종걸음으로 전철역에 이르렀던 어느 새 아이는 새 근 집이 들어 있다. 저녁 하늘에 붉게 비친 두 개의 십자가 를 보면서 아이가 '십자가(십자가), 십자가(십자가)'라고 외치면 바쁜 걸음을 늦추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킨다. 길고 늦게만 보이는 계단을 풍광거리며 열심히 올라간다. 교회 본당에 들어서면 가슴엔 눈물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이미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주님은 내 심령 을 어루만지셨음을 느낀다. 이제 아들은 재빨리 커서 외적하 게 엄마의 손을 잡고 장난도 치면서 여유롭게 교회에 들어 선다. 때로는 이슬비 같이, 때로는 가을에 단비 같이, 폭포 수 같은 명쾌하고 통쾌한 은혜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다.

어느 한 주간은 <해 나는 낙심하나> 찬송이 계속 입에 서 났었다. 그 곡을 통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느끼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그 주간 위임목사님도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위로를 주시는 귀한 체험이었다. 처음에 구구 절절 말씀을 읽어나가는 금요찬양집회 설교에 적응하지 못 해서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슬이 깨어지듯 심령에 복 음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반복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크리스 마스의 메시지가 더욱 새롭게 나의 영혼을 깨운다.

요즘에도 여전히 남편의 투정과 방해 공작에 나는 나 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 한 훈련과정임을 믿으며 남편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있 다. '남편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에 그 이 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는 생명의 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천국을 향해 열심히 행군한다.

(이수연(전서, 8교구))

예수님만이 답이 되어 십자가로 배부르고 싶다!

밥에 잡자리에 들면서 '내일 환하게 비치는 아침 해가 없으면, 어대로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기도하곤 했다. 나의 믿음은 회개했고 어두웠다. 그러나 주님은 월요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 를 깨워주셨다. 시계를 맞춰놓고 자는데도 시계보다 먼저 나를 깨우는 주님의 손길이 더 정확했다. 요한복 음 강해를 들던 몇 년 동안 월요일 새벽은 정말 행복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나는 수가상 우물거는 여인이기도 했고, 십자가 아래 마지막 남은 자였던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했다.

이전에 내에게는 어두웠던 믿음뿐이었다. 부활의 주님보다 시체만 찾아해매는 삶이었다. 회미한 믿음이었 다. 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 고집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열심도 내려놓아 야 한다는 말씀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의'를 붙들려는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는 말씀이었다. '어두운 믿음, 회미한 믿음'을 지나 '빛나는 믿음으로', '불신앙에서 확실함으로' 나를 끌어내리신 성령의 은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시킨 날, 나를 울게 만드 셴다. 거듭거듭하여 다시 한번 새벽기도회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목사님은 5%의 심장의 힘과 95%의 심장박동 기계에 의지하여 건디에 내신다는데 새벽기도회를 다시 인도하시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간충전>에 위임목사님께서 월요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던지... 너무 좋아서 감동충동을 겪었다.

10월 1일, 다시 시작된 위임목사님의 월요새벽기도회는 <마가복음> 강해였다. '왜 시시한 마가복음을 하실 까?' 라고 생각했던 내게, 첫날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 았다.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 이 세 가지뿐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 그리스 도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라는 말씀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위임목사님 말씀을 듣는 새벽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소년과 마디 마디 를 조물조물 만드시는 느낌이다. 계속된 말씀에 어느새 내 입은 '아!' 벌어져 있다. 말씀이 진짜 맛있다. 끝 맛있다.

우리에게 먹여 주시기를 위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더욱 폭넓어지는 월요새벽기도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가복음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사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하다. 내 율타리의 소울들이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을지라도 세상의 것에 대해 아파하거나 주리거나 갈증 없 이 예수님만이 답이 되어 십자가로 배부르고 싶다. 광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 증거하는 길을 걸으라고 외치시는 목사님께 "네, 순종합니다. 자기부인과 순종으로 드러낸 십자가의 예수님 을 전할게요." 위임목사님의 예타는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예수님과 무언의 약속을 한다.

(무명의 성도)

*마가복음을 통한 월요새벽기도회의 은총은 새벽 4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숨 고르기 하면서도 주여
순간 실수에도 주여
성령 말씀 들으며 아멘 하는 것과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온전할
주님이 주신 평안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피어난다!

주일 교회에서 사랑부 친구를 만나면
뜨거운 눈물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느껴짐은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사람이 겪는 일 중에
가장 쓰리고 아픈 일 여러 번 겪고도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누구라도 만나기만 하면
말주변이 없음에도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순욱(교사, 사랑부)

먼저 하나님께로 간 남편 짐까지 지고
세상일에 지친 몸으로
멀리 있는 한 교회를 일 주일에 몇 번씩
수십 년 다닐 수 있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나!

사랑의 편지②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류승연입니다. 변변히 인사도 여쭙지 못하고 어느덧 동역 로 돌아가게 되어 섭섭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주일예배, 찬양예배, 금요찬양 집회에서 주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 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안했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말씀 중에 목사님 건강이 그토록 좋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마음 이 많이 아팠습니다. "건강하셔서 많은 영모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셔야 할 텐 데..."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묵상으로 들 을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주간충전>, <중언의 만나>, 설교 테이프, 목사님 이 주신 금요찬양집회 찬양곡 모음 CD를 읽고, 보고, 들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 오 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늘 건 강하시길. 주님 안에서 승리의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07. 9. 28. 류승연 드림.

제40대 피택장로 주재발표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1-2)

서론 |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다 한 가지 진리는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 하와 하나님은 죄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인이며, 최초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하와는 구세주의 중요한 맥을 잇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하와의 선명이 잘못되었을지라도 회개를 통한 셋의 출산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벨 아벨의 삶은 불신앙의 형 기보다 짧았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피는 의로운 자의 피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아벨이 흘린 피가 첫 번째 흘린 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피는 시대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3. 리브가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신실한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쌍둥이의 임신! 그러나 이 은총의 선물은 리브가의 욕심과 믿음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인간 본연의 욕심에 사로잡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4. 야곱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어머니께 많이 의존하는 내성적 성격에 술수와 계략이 뛰어난 자로

자리나게 됩니다. 장자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된 야곱은 그 죄값으로 20여 년간을 외지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5. 요게벳 요게벳은 모세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세상의 입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모세 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본받았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절대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6. 모세 모세는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의 명령으로 모든 아가들이 살해를 당했지만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구세주를 이어받았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려진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심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믿음에 굳건한 종이었습니다.

7.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는 퇴폐한 시대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 더군다나 그녀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대의 약함, 불임의 고통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을 옮겨 나갔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 삼손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태어났으며, 나살인의 서약대로 잘 자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말뚝에서 떠났습니다. 나살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삼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9. 한 나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에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감수하며 서원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아도 넣을 수 없는 아이였기에 한나의 절망과 탄식은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사무엘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타락은 사무엘에게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매우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히 보면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만은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였습니다.

11.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고 진실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12.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은혜 시대를 예비하는 준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사역은 침지 않았습니.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예수님의 매사이 되심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것인 옛날 가정, 열두 명의 믿음의 사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믿음의 선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 성령의 임하실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야 합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74	배부	25 회원부		1599	거제	25 회원부	김영준(17)
1575	이예민	2 청년1부	전택희(24)	1600	천안지	25 회원부	김영하(4)
1576	유규식	1 청년2부	강 옥(1)	1601	조재형	1 소양부	김진석(3)
1577	세로재이	25 회원부	나영림(1)	1602	문계숙	21 청년1부	이연규(9)
1578	전현경	16 청년2부	전현학(17)	1603	문순이	14 청년2부	최은진(4)
1579	이은정	16 청년2부	전현숙(17)	1604	배미경	25 회원부	박현숙(1)
1580	황승이	18 청년1부	김근애(1)	1605	여지	25 회원부	김은진(10)
1581	이성희	1 청년1부	신영주(1)	1606	오지	25 회원부	홍순영(2)
1582	이경희	20 청년2부	유호준(10)	1607	오영자	2 청년1부	이연숙(2)
1583	김진환	20 유호준(10)		1608	시크나	25 회원부	강진희(21)
1584	김기훈	20 사명부	유호준(10)	1609	여미경	25 회원부	최두연(2)
1585	진신자	2 청년1부	고정실(4)	1610	유현주	1 청년1부	조민희(4)
1586	이정숙	2 청년1부	유복성(13)	1611	허혜강	2 청년2부	문순희(2)
1587	김기수	19 청년1부		1612	정윤재	15 동종2부	안혜영(15)
1588	정문숙	19 청년1부		1613	황정민	13 청년1부	박복희(3)
1589	김하은	19 초등부		1614	박진주	12 청년1부	이수애(19)
1590	김용우	19 초등부		1615	김연숙	11 청년1부	김성희(13)
1591	김은석	2 청년1부	홍광선(2)	1616	김지현	4 고등부	임성경(24)
1592	정영선	2 대학부	정복희(2)	1617	조지	25 회원부	이연규(8)
1593	노은혜	21 청년1부	전숙영(19)	1618	유희미	25 회원부	이연규(8)
1594	정은희	11 대학부	김규식(9)	1619	현크조	25 회원부	이연규(8)
1595	김희정	12 청년2부	이유진(1)	1620	비미리	25 회원부	이연규(8)
1596	강 진	2 청년1부	김선영(1)	1621	소혜은	25 회원부	김금숙(9)
1597	손한주	9 청년2부	문은석(16)	1622	임규성	2 청년2부	전성실(13)
1598	이동원	19 청년1부	문호식(15)	1623	황일정	3 청년2부	박지희(3)

박민기	류병렬	여국근	안희석	정진호
6.0점	7.0점	8.0점	9.0점	9.0점
김덕환	차 훈	임태현	이승기	최종철
6.0점	7.0점	7.0점	7.0점	8.0점
하성진	안지연	정순신	양복배	이성진
5.0점	2.0점	2.0점	2.0점	16.0점
최광구	이재영	이경춘	김준보	윤수인
34.2점	1.2점	16.0점	9.2점	10.2점
황선진	유제건	강범구	전성원	김원규
10.0점	1.0점	1.0점	1.0점	중간미
이홍권	양상진	유정택	유현칠	탁영희
14.0점	1.0점	1.0점	1.0점	3.0점
김완수	최서생	최각진		
14.0점	2.0점	2.0점		

■ 어휘도사

윤은식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11.0점	16.0점	17.0점	5.0점	6.0점
김장현	강덕필	최혜진	전희오	김장자
10.0점	1.0점	1.0점	1.0점	14.0점
김경희	유미자	부진희	한일남	임해두
10.0점	9.0점	9.0점	9.0점	9.0점
강대미	오숙아	이복순B	강호수	전영희
12.0점	9.0점	4.0점	2.0점	2.0점
이혜소	황순온	김정은		
1.0점	13.0점	24.0점		

■ 찬양감독

- 찬양지도자 강문섭 김원집
- 찬양지도자 서준우 김원집
- 찬양지도자 김수연 ○ 찬양지도자 장영희 노은영
- 찬양지도자 김소연 ○ 찬양지도자 김소연
- 찬양지도자 송시원 ○ 찬양지도자 송시원